

#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에 나타난 의상에 관한 연구(제2보)

- 주요 등장 인물의 의상 표현을 중심으로 -

한 은 희\* · 한 자 영<sup>+</sup> · 유 송 옥\*\*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sup>+</sup>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f The Costume in the Historical TV Drama that the Empress Myungsung Appeared

- Focus on Costume of Main Character -

Eun-Hee Han\* · Cha-Young Han<sup>+</sup> · Song-Ok Ryu\*\*

Ph.D.,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05. 8. 11 투고)

###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costume change of according to the status of character succeeding the investigation of the ceremonial costume change in historical TV dramas that The Empress Myungsung entered. For this study, the costume images among historical TV dramas, that Mungsung entered, '500 years of Chosun Dynasty, Taewongun(1990, MBC)', 'The Glorious Dawn(1995, KBS1)', 'The Empress Myungsung(2001, KBS2)' were u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change of main character are as follows.

First, main character's costume has been increase gradually in number and item. Second, Especially in the last work, 'The Empress Myungsung', the royal costume based on historical evidence in aspects of silhouette, but it didn't according to the historical costume in aspects of color and textile. Nevertheless the costume reveals the status of each person significantly. Third, the costumes of the recent historical drama appears as a optical symbol that represents historical view point and different interpretation of each drama. Therefore the costume according to the status of the character wrong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Consequently, TV costume in historical drama Myungsung entered has been focused on the beauty of the screen and dramatic effect than historical viewpoint. So the costume have been to be an essential visual part by means of the symbol revealed the purpose .

Key words: costume in historical TV drama(TV 사극 의상), historical point of view(고증), the empress Myungsung(명성황후), dramatic effect(극적 효과)

## I. 서론

최근의 사극은 고중에 입각한 전통 사극에서부터 역사물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사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어떠한 유형의 사극이든 사극에 있어서 의상은 직접적인 시각요소로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극 의상<sup>2)</sup>은 외적인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극중 인물의 내적인 성격까지 함축하는 시각언어<sup>3)</sup>로서 고증을 바탕으로 시대를 재현해야 함은 물론 제작여건과 사회문화적 흐름을 고려하는 균형 감각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TV 사극 의상은 여타 대중매체보다 전파력이 강한 매체의 특성상 일반 대중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 영향력도 크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는 TV 사극 의상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제1보에서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의 의례 절차를 중심으로 한 의상표현 변화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2보에서는 그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제작 시기를 달리하지만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TV 사극 속에 표현된 신분별 의상 표현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보의 연구에서 행해진 고증의 변화 양상 뿐만 아니라 각 인물별 의상연출에 나타난 고증과 극적 구성간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사극 의상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극에서 효과적인 복식 표현의 중요성을 재고하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첫째,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각 TV 사극의 내용분석을 한 다음 본론으로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의 신분별 의상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이에 따른 최근 사극 의상의 표현의 특성을 논하면서 각 드라마별 의상 고증의 정도와 극적 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더불어 TV 사극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상 연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이다.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은 1966년작, 1972년작, 1973년작, 1982년작, 1990년작, 1995년작, 2001년작으로 총 7편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1990년작, 1995년작, 2001년작 세 작품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에 표현된 의상을 연구범위로 삼았다. 이 세 편의 작품들은 일회분인 단막극과 특집극을 제외한 연속물로서 작품의 화면 상태가 양호하여 분석적 연구가 가능한 것들이다.

연구 방법은 방송사로부터 구입한 연구 대상이 된 영상물을 고찰하여, 문헌을 이용하여 고증, 분석하였다. 이때 복식 고증은 문헌 고찰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드라마의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드라마를 제작했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나 언론 관계 서적 그리고 신문 기사 등을 이용하였다. 고증을 위한 사진 자료는 문헌에서 인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이 된 시각 자료는 영상물을 연구자가 직접 캡처한 것이나 각 드라마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한 것들을 이용하였다.

## II. 각 드라마의 내용분석

명성황후가 등장했던 모든 TV 사극을 각 드라마의 방영시기, 명성황후 배역, 작가, 연출 및 제작사 등과 함께 모두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 표시는 본 연구대상이 된 드라마들로서 이들 드라마들만을 대상으로 드라마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MBC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MBC의 '조선왕조 500년'은 1983년 3월부터 11화 시리즈로 총 538편으로 구성된 8년간의 드라마였다. 이병훈 PD는 길고 험난한 작업에 미비한 고증으로 실수도 많았지만 비교적 시청률에 의연하게 대응하여 끝을 맺을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sup>4)</sup>. 신봉승 작가 이병훈 연출의 11화 '대원군'은 철종의 등극에서부터 고증의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으로의 환궁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편년체식 왕조사

〈표 1〉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

년도	작품제목	명성황후 역	극본	제작연출	제작사	비고	연구 대상
1966.10.8-1967.4.12	대원군	문정숙	장덕조	최상현	TBC 총28회분	릭극장	
1972.2.1-1972.10.28	대원군	김민정	이은성	표재순	MBC 총228회	일일사극	
1973.4.2-1973.12.28	만비	김영애	김영곤	표재순	MBC 총217회	일일사극	
1982.1.5-1982.12.26	공운	김영애	신봉승	황은진	KBS1 총51회	1983년 방송대상작품수상 일요사극	
1990.5.6-1990.12.23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김희애	신봉승	이병훈	MBC 총32회분	일요사극	◎
1995.10.28-1996.9.29	찬란한 여명	하희라	신봉승	이녹영	KBS 총100회분	주말사극	◎
2001.5.9-2002.7.18	명성황후	문근영 이미연 최명길	정하연	윤용훈	KBS2 총124회분	주간사극	◎

였다. 특히 이수종 분의 철종의 애뜻한 로맨스는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다른 사극들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이야기식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이 드라마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철종의 뒤를 이룬 고종 그리고 대원군과 명성황후에 얽힌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개화의 선각자들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역시 특별한 역사 방향의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인 사건 서술에 충실하고 있다. 다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말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임동진 분의 대원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대원군의 강한 성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2. KBS1 찬란한 여명

‘찬란한 여명’은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의 출현과 위협적인 통상 요구에서 대한제국 황제 즉위기에 이르기까지 길지 않은 시기를 총100회분 대하드라마로 조선조 최대 변혁기에 대해 강물 같은 흐름으로 치밀하게 조명한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 작가인 신봉승은 1980년대 이래 1990년대까지 조선말 대원군과 명성황후를 배경으로 제작된 TV 드라마를 모두 집필하였는데,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간간히 역사 해석을 하며 TV 화면에 등장하였다. 그는 조국의 절박한 위기와 급박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인식하고 당시 조선의 운명을 타개하고자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한 개화 선각자들의 개혁의 열정을 그리고자 했다. 따라서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하는 개화 선각자 유흥기,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홍균, 박영효 등의 신진 정치 세력을 부각시켜 민족의 자긍심을 살리려 노력했으며 역사 변화의 주체로서 민중의 삶에 주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갑수가 연기했던 역사에 미미하게 기록된 개화승 이동인의 존재 또한 부각시켰다. 아울러 이동인과 명성황후를 사상적으로 이어주는 가상 인물 효육을 만들어 재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화 선각자들에게 많은 장면을 할애하고 비중을 두었던 것에 비해 명성황후와 고종 그리고 대원군에 얽힌 역사의 이해와 분석이 상대적으로 작아 이 시기의 역사가 담고 있는 격변하는 국제 환경에의 적응 실패라는 거대한 의미를 희석화하는 면도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sup>5)</sup>. 아울러 엄청난 물량투자와 연기자들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고증이나 자문을 무시한 일방적인 역사 해석으로 공영 방송의 대표 사극으로 공신력 획득에 실패했다는 비판

을 받기도 하였다6).

### 3. KBS2 명성황후

시기적으로 가장 후기작인 2001년도 KBS의 '명성황후'는 그간의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드라마와는 여러 역사적 관점을 달리 한다는 데서 차별된다. 사실 지난 100여년간 명성황후는 심지어 옛 노인들이 머리를 훑을 때 비유할 정도로 사악한 존재라 여겼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세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국모'로 부끄럽고 부정하고픈 과거였다7). 그러한 명성황후가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당대 최고의 정치가', '애국혼의 화신'으로

그러지며 폭발적인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명성황후 시해 100주기 이후로 줄곧 황후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시도되어져 왔으며 그러한 움직임 속에 일제히 '명성황후 신드롬'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드라마도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이 드라마 이전에 이문열의 소설 '여우사냥', 뮤지컬 '명성황후'등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뮤지컬 '명성황후'의 해외 진출의 큰 성공은 일제 강점기의 패망의 나라가 아닌 민족의 혼이 살아 있는 승리의 나라로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젊은층에 까지 호소력을 지니며 파급되었다8).

이 드라마가 제작되던 시기는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으로 개최되던 때라 이 드라마의 제작진

〈표 2〉 각 드라마의 내용분석

	MBC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KBS1 장관학 역전	KBS2 명성황후
제작시기	1990년	1995년	2001년
다루는 시기	철종의 강화도령 시절부터 고종의 아관파천, 경운궁 환궁에 이르기까지	1866년 미국 상선의 출현에서부터 고종의 대한 제국 즉위에 이르기까지	고종의 등극에서부터 명성황후의 국장, 대원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요 등장인물	철종, 유흥식, 대원군, 고종, 민비, 조대비, 부대부인, 천하장안.	유홍준, 이동인, 박규수, 김옥균 등의 개화선각자 고종, 대원군, 민비, 조대비, 무녀 효유, 미국 상선 저너럴 셔먼호의 평양전투 유흥식, 박규수의 개화운동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합대 전투와 전쟁 고종 명성후 가례 임오군란 무녀 진영군과 민비의 연합 일본 교토의 동본원사에서의 이동인의 수행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의 죽음(이동인, 김옥균) 을미사변 고종의 단발과 단발령 아관파천 황제 등극식	명성황후, 고종, 대원군, 조대비, 흥계훈, 홍상궁, 귀인 이씨, 귀인 장씨, 순종, 순종비.
연출된 주요 장면	철종의 첫사랑 철종과 철인후 가례 고종명성후 가례 (친영례) 천주교인 박해 (부대부인의 천주교 신앙) 최익현의 상소 임오군란(왕비의 피신과 사가에서의 생활, 국상) 갑신정변 을미사변 고종의 단발과 단발령 아관파천	명성황후의 간택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 영보당 귀인 이씨와 명성황후, 대원군의 갈등 최익현의 상소 귀인 장씨와의 갈등 임오군란 청의 내정간섭 갑신정변 갑오경장 을미사변 아관파천 명성황후의 국장	
드라마 기획의도	국말 조선사를 편년체식으로 다루고자 하여 시대별 사건 전개에 치중함	기존의 궁중사극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개화파를 중심으로 근대화 역사를 극화함	민족사관에 근거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보고자 함. 특히 일제에 의해 폄하된 명성황후에 대한 재평가
역사적 관점	대원군의 개혁과 애국적 생애	개화선각자들의 개혁 의지와 열정, 그 행적을 그리고자 함	철인의 명성황후에 대한 인식의 재평가.

은 민족 사관에 기초한 우리 역사의 바로보기와 역사를 통한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려는 기획의도를 지녔었다. 일본이 NHK TV의 대하극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가꾸고 재조명하는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명성황후를 소재로 했다는 제작진들의 설명이다<sup>9)</sup>.

이 작품은 중간에 여주인공이 전격 교체가 되는 등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그간의 명성황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일조했다는 방송가와 학계의 평가 역사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사극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명성황후를 최대한 화려하고 기품 있는 왕후로서 표현하여 일제에 왜곡된 '민비'의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명성황후를 위한 의상도 화려함을 더하기 위한 본전에 진품의 장신구 등으로 고종과의 혼례를 위한 '대수머리'에만 5백만원이 드는 의상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sup>10)</sup>. 이 드라마는 2002년 대만의 웨이라이 TV와 수출 계약을 맺음으로 우리나라 TV 사극으로서는 처음 해외 진출도 하게 되었다.

다음 <표 2>는 각 드라마의 제작시기와 다루는 시기 주요 등장인물, 기획의도, 역사관 등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이들 세 드라마는 동일한 역사적 배경 하에 제작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별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장면 연출 및 인물 등 물 등에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의상 연출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 Ⅲ. 각 등장인물의 신분별 의상 유형 분석

#### 1. 고종의 왕의 의상

조선 후기 왕의 복식을 살펴보면 가례 때 법복(法服)으로 면복(冕服)과 조복(朝服)을 착용하였고 그 외 제사 때 제복(祭服)으로 면복을, 삭망(朔望), 조강(朝降), 진표(進表) 조건(朝見)에 입는 예복으로 조복을, 일상 집무시의 시무복으로 상복(常服)을 착용했다.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세 드라마에서 고종은 대부분의 장면이 집무시로 따라서 집무를 볼 때 착용하는 왕의 복식인 상복 즉 익선관에 곤룡포를 착용하고 등장하였다.

가례장면에는 주로 친영례 절차에 따른 곤복에 면류관을 쓴 면복 차림을 하였고 언거복으로 상투관에 드라마에 따라 색상은 다르지만 넓은 포를 착용하였다. 고종 말기에 가서는 서구식 복장인 육군

<표 3> 각 드라마에 연출된 왕의 의상

시기	의복유형	드라마별 의복 연출		
		MBC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KBS1 찬란한 여명	KBS2 명성황후
황제기 이전	대례복	면복(면류관, 곤복)	면복(면류관, 곤복)	면복(면류관, 곤복)
	상복 (常服)	상복(常服 : 흑색 익선관 · 대홍의 곤룡포)	보라색 혹은 흑색의 익선관 · 홍 곤룡포	익선관(보라색 혹은 흑색) · 홍곤룡포
	언거복		흰색 대수포 · 상투관	대수포(황금빛) 상투관
	상복 (喪服)			옥색 단령포 · 흑색 절상건
	기타	서구식 제복	서구식제복	용복(전립 · 동다리 · 전복 · 보) 조복(원유관, 강사포) 갓(조영) · 도포
황제기 이후	황제 대례복	장면연출이 없다	황제등극기의 면복	
	황제상복			황제 집무복(흑익선관 · 황곤룡포)
	기타			서구식 제복

제복이 등장한다. 그 외에도 '찬란한 여명'에서 고종은 황제 등극식에 황제면복인 12류면 12장복을 입고 등장하며 '명성황후'에서 고종은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착용한 조복 차림을 하거나 전립에 철릭과 전복을 입은 용복 차림으로도 등장하는 등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 다양한 왕의 의상을 표현하고 있었다.

다음 <표 3>은 각 드라마에서 연출된 왕의 의상들을 나타낸 것이다. 왕인 고종의 의상은 시기적으로 뒤에 제작되어진 드라마일수록 의복 유형이 다양해짐을 볼 수 있다.

## 2. 명성황후의 왕비 의상

조선시대 왕비의 복식으로는 의례(儀禮) 때 법복(法服)으로 적의(翟衣)를 의대(衣櫛)로 노의와 장삼을 착용하였으며 평상시 궁중에서 소례복으로 당의 차림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세 드라마에서 명성황후가 착용한 의상은 적의의 대례복, 당의 차림의 소례복, 저고리와 치마 차림 등이 주를 이루며 그 가운데 당의 차림의 연출이 가장 많았다.

최근작인 '명성황후'의 경우 시기적으로 앞선 두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과 '찬란한 여명'과 비교할 때 명성황후의 의상 수도 많고 의복의 색도 훨씬 다양하게 쓰였다. 특히 드라마 '명성황후'의 경

우 왕비가 대례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 연출이 다른 드라마에 비해 많았으며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의 경우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특이하게 베일 달린 모자에 서양식 드레스를 착용한 명성황후가 등장한다. 아래 <표4>는 각 시기별 드라마에서 연출되어진 명성황후의 의상들을 정리한 표이다.

## 3. 대원군 및 문무대신 의상

조선 시대의 관직에 오른 양반은 문무백관으로 지칭되며 사대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문무백관의 복식은 의례시(儀禮時) 조복(朝服), 제사(祭祀) 지낼 때 제복(祭服), 공사(公事) 업무시 공복(公服), 집무시에 상복(常服), 평상시에 편복(便服)을 착용하였다.

세 드라마에서 대원군을 포함한 문무대신의 의상은 대례복으로 금관조복을 착용하였고 상복으로 사모에 단령포를 착용하였으며 집안에 연거시나 외출 시에는 조선후기에 발달된 도포, 창의, 심의 등의 다양한 포를 착용하였다. 대부분의 장면에 연출된 백관 상복인 단령포는 가슴과 등에 흉배를 달았으며 각 드라마마다 단령의 색과 소재, 흉배 모양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5>는 각 드라마에서 착용되어진 대원군과 문무대신의 의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각 드라마에 연출된 왕비의 의상

의복유형	장례복	소례복	평상시 의복	비고
MBC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적의	연두당의 · 다홍치마		서양식 베일달린 모자 · 검은 드레스
KBS1 찬란한 여명	적의	연두당의 · 다홍치마 녹당의 · 다홍치마 진녹당의 · 다홍치마	옥색저고리(금박자적삼회장) · 다홍치마 자주삼회장분홍저고리 · 다홍치마	
KBS2 명성황후	녹원삼 적의 홍원삼	붉은 당의 · 남치마 고동색 당의 · 남치마 쪽빛 당의 · 자적치마 남색당의 · 홍치마 연두당의 · 남치마 연녹당의 · 홍치마 하늘색 당의 · 홍치마 진녹당의 · 홍치마	자적 삼회장 송화색고리·다홍치마 녹색 저고리 · 다홍치마 옥색저고리 · 다홍치마 자적삼회장분홍양단저고리 · 자적치마	적의의 경우 가래이외에도 입오군란 이후 환궁시, 을미사변 당시 시해 장면 등에 사용됨

<표 5> 각 드라마에 연출된 대원군 및 문무대신의 의상

TV사극	인물 복식 유형	대원군		문무대신	
		복식	의상	복식	의상
MBC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대례복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상복	사모·홍단령	사모·홍단령/밝은 청단령	사모·홍단령/밝은 청단령	사모·홍단령/밝은 청단령
		청색 사모·청단령(용문 금수)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구군복	.	동다리·전복·전대·전립	동다리·전복·전대·전립	동다리·전복·전대·전립
	편복	도포·주의·답호	도포·창의·주의·답호	도포·창의·주의·답호	도포·창의·주의·답호
喪服	사모·홍단령	백사모·백단령·흑대	백사모·백단령·흑대	백사모·백단령·흑대	
KBS1 찬란한 여명	대례복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상복	사모·홍단령	사모·흑단령/진청단령	사모·흑단령/진청단령	사모·흑단령/진청단령
		연보라 단령(거북홍배)·사모(용문양 사모)	사모·흑단령/진청단령	사모·흑단령/진청단령	사모·흑단령/진청단령
	구군복	.	동다리·전복·전대·전립	동다리·전복·전대·전립	동다리·전복·전대·전립
	편복	도포·창의·주의·답호·심의	도포·창의·심의·주의·답호	도포·창의·심의·주의·답호	도포·창의·심의·주의·답호
	상복 (喪服)	백사모·백단령·흑대	백사모·백단령·흑대	백사모·백단령·흑대	백사모·백단령·흑대
서구식 제복	.	육군 복장 제복	육군 복장 제복	육군 복장 제복	
KBS2 명성황후	대례복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금관조복(금관·적초의·적초상·청초중단)
	상복	사모·홍단령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익선관·청단령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흑사모(금수), 흑단령(거북 금수)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사모·흑단령
	구군복	.	동다리·전복·전대·전립	동다리·전복·전대·전립	동다리·전복·전대·전립
편복	심의·도포·창의·주의·답호	심의·도포·창의·주의·답호	심의·도포·창의·주의·답호	심의·도포·창의·주의·답호	
상복 (喪服)	굴건제복->익선관·백단령·흑대	굴건제복->흑사모·백단령·흑대의 굴건제복의 혼용	굴건제복->흑사모·백단령·흑대의 굴건제복의 혼용	굴건제복->흑사모·백단령·흑대의 굴건제복의 혼용	
	흑사모·백단령·흑대	흑사모·백단령·흑대	흑사모·백단령·흑대	흑사모·백단령·흑대	

## II. 주요 인물의 의상 표현 분석

이 장에서는 주요 인물인 고종, 명성황후, 대원군이 대부분의 장면에서 주로 연출한 의상을 중심으로 복식의 형과 색, 재질 등 세부적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고종의 상복과 명성황후의 당의차림 그리고 대원군의 관복에 대해 상세히 고찰, 분석하였다.

### 1. 고종의 상복(常服)

세 드라마에서 연출된 왕의 집무시 의복은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은 상복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왕의 상복인 곤룡포는 시대에 따라 깃, 무, 소매 등의 변화를 보이지만 홍색의 단령에 오조원룡보를 달은 것이 기본 형태이다. <사진 1>에

서 볼 수 있듯이 '조선왕조 500, 대원군'에서는 흑의 선관에 홍곤룡포 차림으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일관하는 반면 '찬란한 여명'에서 고종의 복식은 대원군의 섭정기에는 분홍빛이 도는 보라색 익선관을, 친정 시기에는 진보라 빛이 도는 흑의선관을 쓰고 원룡보가 부착된 홍색 곤룡포를 입고 있다<사진 2>. '명성황후'에서의 고종 역시 '찬란한 여명'에서 연출된 고종의 상복(常服) 차림과 동일하다. 다만, 국말 명성황후의 장례식에서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 황곤룡포를 착용하고 등장함으로써 다른 드라마에서는 연출하지 않은 황제상복(皇帝常服)을 볼 수 있다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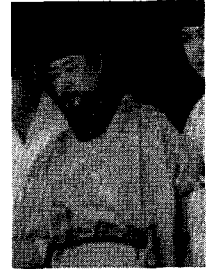
세 드라마에서 고종이 착용한 곤룡포는 크기 등 명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외형상으로 금수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용 문양의 보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곤룡포의 령(領)은 깊게 파여 U자



〈사진 1〉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고종의 상복 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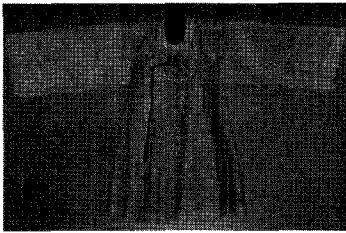
〈사진 2〉 '찬란한 여명', 고종의 상복 차림



〈사진 3〉 '명성황후' 국장  
장면의 고종의  
황제 상복 차림



〈사진 4〉 영조의  
어진<sup>11)</sup>



〈사진 5〉 고종의 황곤룡포  
세종대학 박물관 소장<sup>12)</sup>

를 이루고 있으며 단령의 홍색 깃 안으로 흰색의 직령의 이(裏)가 보인다. 조선시대 단령 깃은 초기에는 목 부분에 꼭 맞게 되어 있었지만 중기 이후부터 곡령(曲領)으로 느슨하게 되었고 초기에 매우 컸던 보의 크기도 많이 축소되는데 세 드라마의 고종의 곤룡포는 이러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선의 어진 가운데 이 드라마와 역사적 시기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영조의 어진을 살펴보면〈사진 4〉 대홍의 곤룡포에 2단의 정(頂) 위로 양각이 둥글고 넓게 퍼진 익선관을 쓴 모습이다. 세 드라마에서 고종이 착용한 상복은 영조의 어진에 보이는 령(領)보다 더 깊이 파였고 보의 크기도 작아 보여 색상이나 형태적으로 비교적 고종에 입각한 재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명성황후'에서 연출한 황곤룡포는 고종이 황제 칭제 이후 착용한 황제 상복이다. 〈사진 5〉는 고종의 황곤룡포로서 이 드라마에서 연출한 고종의 상복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황제기의 고종의 상복은 곤룡포에 황제의 상징인 일월문을 보에 넣었는데 부착되어 있는 보는 일월오조원룡보(日月五

爪圓龍補)로서 가슴 앞의 보는 용이 해를 상징하는 빨간색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고 등 뒤에 있는 보에는 용이 달을 상징하는 흰색 여의주를 입에 물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는 일문오조원룡보가 붙어있으며 왼쪽 어깨에는 월문오조원룡보가 붙어 있다. 소매는 유물에 의하면 착수와 광수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고종 황제기의 상복은, 그 보의 표현이 영상으로 인해 명확하지는 않으나 붉은 직령 깃이 달린 착수의 황곤룡포로서 형태 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명성황후'에서 연출되고 있었다.

## 2. 명성황후의 왕비 소례복

세 드라마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왕비복인 당의는 왕비의 소례복으로 왕가 여인들이 크고 작은 예식과 명절, 그리고 사시사철 문안례의 복식으로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재료와 장식의 차이를 두어 상궁, 나인들의 예복으로도 착용하던 것이다. 당의는 단배자, 단저고리 등 그 기원을 저고리에 두고 있으며 「가례도감의궤」와 「궁중발기」에 의하면 당의라는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당저고리 혹은 당고의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sup>13)</sup>. 당의의 구성을 보면 깃과 고름, 섶이 있고 소매의 형태 또한 다른 의복과는 다르게 저고리 소매처럼 좁다. 반면 예복 소매에 달리는 한삼과 같이 당의 소매 끝에는 흰색 거들지가 달리고 왕비의 당의에는 가슴에 보나 흉배를 단다. 당의의 깃은 저고리 깃이 둥근 깃으로 변화한 조선말기에도 당코 깃을 고수하고 있으며 당의의 깃은 길의 색과 같은 색을 쓰고 고름만 흥



색이나 자주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sup>14)</sup>.

조선 말기의 당의의 유물들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당의의 형태가 후기에 비해서도 소매 폭이 넓어지고 수구도 넓어지는 대신 당의의 도련선이 더욱 곡선을 강조하여 아름다운 당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sup>15)</sup>. 이들 드라마에서 왕비 당의의 형태는 이러한 조선말 당의의 형태로 배래선 및 도련선이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작에서 그 곡이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 왕비, 대비, 공주, 응주 등의 당의에는 조선 시대 왕족의 표적으로 당의보가 붙이며 지위에 따라 황제나 황후의 보는 오조룡보를 비빔, 공주, 응주 등은 사조룡보를 사용하였다<sup>16)</sup>. 각 드라마에 사용된 당의에는 정확한 용의 발톱 수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용보가 붙어 있음은 알 수 있다. 당의는 일반적으로 도류문(桃榴紋), 별문(別紋), 수복자문(壽福字紋)이 많이 쓰였다<sup>17)</sup>. 이들 드라마에서 당의에 사용된 금박 문양 가운데는 도류문과 수복자문이 많은 편이고 문양을 놓은 방법은 직금보다는 금박의 형태가 많다. 이는 화면상의 효과 면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수고스러운 직금보다는 효율적인 금박 제작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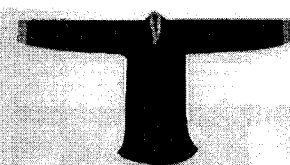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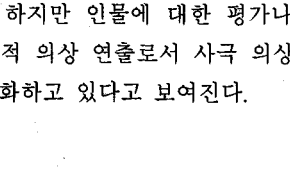


〈표 6〉은 각 드라마에서 연출된 왕비의 당의의 차림을 당의의 실루엣, 문양 배치에 따른 장식 유형 그리고 받쳐 입은 치마 색으로 나누어 고증과 함께 비교 고찰한 것이다. 세 드라마에서 연출한 왕비 당의의 실루엣은 고증에 입각하여 도련과 소매에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색 표현과 당의에 들어간 금박 장식에서 각 드라마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저고리 유물에 의하면 이 시기의 금박의 배치나 장식에 따른 당의 유형은 ㉠ 당의 전체에 수복자문을 수놓은 것, ㉡ 어깨에서 소매까지 금박과 당의 중간 부분에 한 줄 금박을 가한 것 ㉢ 마지막으로 어깨에서 소매까지의 금박과 당의 중간에 화려한 넓은 금박을 한 것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에서 김희애분의 명성황후의 당의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색상도 연두색 한 가지로 일관했으며 당의 장식 형태도 ㉢ 유형 한 가지로 한정적으로 표현되었다. '찬

란한 여명'에서는 하희라가 연기한 왕비 당의는 흐리거나 진한 녹색 계열의 당의에 ㉡와 ㉢ 유형의 당의로 전 드라마에 비해 다양해진 편이다. 최근작인 '명성황후'의 경우 문근영 분의 어린 명성황후의 복식은 ㉡유형의 초록 당의에 다홍치마를 입었으나 이미연 분의 명성황후가 착용한 당의와 최명길 분의 명성황후가 착용한 당의는 ㉡와 ㉢ 유형에 녹색, 남색, 빨강색, 보라색, 자적, 고동색, 청색, 하늘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초기 명성황후의 당의는 당의 하단에 그리 크지 않은 금박 단이 달려 있었지만 최명길 분의 명성황후로 넘어오면서 금박단의 크기가 커지고 화려해짐을 볼 수 있다.

당시 당의에 가장 많이 사용된 색상은 이형상(李衡祥)의 병와집에 “의명부의 옷으로 초록 당의를 입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sup>18)</sup> 대부분 초록색이라 할 수 있는데 비록 진하고 흐림의 차이는 있지만 '대원군'과 '찬란한 여명'에서 왕비의 당의색은 대부분이 녹색으로 연출되고 있어 색상 면에서 고증은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초록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남송색이고 남송색 다음이 자적색 당의이다<sup>19)</sup>. 그러나 '명성황후'에서 왕비가 착용한 당의는 초록색, 남송색, 자적색 이외에도 많은 색상이 사용되어졌으며 이러한 다양한 색상의 당의 표현은 드라마 속에서 명성황후의 위상과 기품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색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또한 당의에 받쳐 입은 치마의 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앞 시기의 드라마들에서 왕비의 당의 차림에는 스란이 달린 홍색 스란치마가 주를 이루는 반면 '명성황후'에서는 홍치마는 물론 남치마와 자적색 치마 등 보다 많은 색상이 사용되어다. 특히 대추빛 나는 자적색 치마는 앞 시기 드라마와 차별되면서도 황후의 높고 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색상<sup>20)</sup>이다.

이상과 같이 드라마 속에서 연출된 명성황후의 당의 차림은 후기작으로 올수록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표현되었으며 '명성황후'에 이르러서는 제작진들의 명성황후에 대한 관점을 고급스럽고 화려한 많은 당의 색상에 반영함으로써 영상미를 고조시키고

<표 6> 각 드라마에 연출된 왕비의 당의 차림 분석

TV 사극	유물에 의한 복식 고증	신부 의복 장식 형태	당의 색	치마 색	TV 영상화 재현물
MBC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p>도련과 배래 곡선 색상: 녹&gt;남송&gt;자적 동정과 거들지를 담</p> <p>㉔ 당의 전체에 수복자문 유물: 덕은공주자적당의</p> 	㉔ 유형	연두색	홍색 (스란)	 <p>색상과 형태가 고증에 부합하나 의복이 한정됨</p>
KBS1 찬란한 여명	<p>㉕ 어깨에서 소매까지 금박 당의 하단에 금박</p> 	㉔, ㉕ 유형	연두색 녹색 진녹색	홍색 (스란)	 <p>색상과 형태 면에서 고증에 입각함</p>
KBS2 명성황후	<p>㉖ 어깨와 소매 상단 당의 중간에 장식문양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복자문을 두름 유물: 영왕비 유물</p> 	㉔, ㉕ 유형	연두색 녹색 진녹색 남색 청색 하늘색 분홍색 홍색 보라색 자적색 고동색	홍색 쪽빛색 자적색 (스란)	  <p>형태는 고증에 입각하되 색상은 자유롭게 연출됨</p>

있었다. 이러한 의상 표현은 부분적으로 고증과 차이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인식을 반영하는 효과적 의상 연출로서 사극 의상의 상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3. 대원군의 관복

조선시대 문무백관들은 집무시 상복으로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었으며 단령 위로 대를 두르고 화를 신었다. 고종 집권기의 단령포는 홍색으로 임란 전에 뒤가 길던 형태에서 전후의 길이가 같아졌으며

과장된 무의 형식이 점차 간소해졌다. 또한 깃 나비는 넓고 파임이 깊었으며 소매폭은 두리소매 같이 넓고 고름은 옷감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대형화되어 나타난다<sup>21)</sup>.

홍선대원군도 군신의 신분으로 입궁시에 백관 상복인 사모에 단령을 착용했다. 다만 '찬란한 여명'과 '명성황후'의 경우 대원군은 왕인 고종의 아버지이자 주요 인물로서 다른 대신들에 비해 밝은 빛이도는 흥단령을 입고 등장한다. 또한 세 드라마 모두 전반부 홍선대원군의 관복에 금사로 수놓은 기린 흉배를 부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종실록」에 “고종 32년 4월부터 대원군은 그의 기린 흉배를 구흉배(龜胸背)로 바꾸어 사용하였다”<sup>22)</sup>고 하므로 이는 고종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드라마에서 연출된 대원군의 관복은 극의 전개 방식에 따라 변화양상이 약간씩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각 드라마에 연출된 대원군 관복을 분석한 <표 7>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7>에 의하면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을 제외하고는 임오군란 때 입궐하는 대원군의 관복에서부터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찬란한 여명'에서 입궐한 대원군의 관복은 사모의 재질이 벨벳 같은 광택소재로 바뀐다. '명성황후'에서는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궐로 들어간 대원군에게 조정에서 상복을 하사하여 사모뿐 아니라 관복까지도 바뀌어 연출되고 있다. <표 7>에서 고종의 옆에 앉아 있는 대원군의 모습에서 어깨에는 금사로 거북 문양을 수놓은 원보를 달고 가슴에는 금사로 수놓은 사각의 거북 흉배를 단 독특한 모양의 청색 단령을 볼 수 있다. 이 청단령의 단령 깃은 목에 바르게 붙어 있다. 대원군은 이 청단령과 함께 검은색의 벨벳 같은 광택 있는 원단으로 양각이 절상된 익선관을 쓰고 나오는데 이러한 단령의 구성은 역사상 유례없던 것으로 고종과는 거리감이 있으나 당시 대원군의 절대적인 위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종이 청단령을 대원군에게 하사하는 장면에서의 나레이션 역시 대원군의 의상이 군왕과 동격임을 설명하면서 당시 대원군의 위상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청에서 돌아온 대원군이 일본군에 의해 조

정에 입궐하였을 때 각 드라마가 연출한 관복은 색상 면에서나 형태 면에서 매우 주목된다.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과 '찬란한 여명'에서 연출된 대원군의 관복은 사모에서부터 단령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금사로 수놓아져 있다. 이 화려한 관복을 통해 다시금 권력을 지니게 된 대원군의 모습이 강조되어 보이며 또한 나라를 위한다는 일념이기는 하나 왜인들의 간략한 의도도 모르고 노탕을 부리는 모습을 반영한 듯하다. 그러나 세 드라마 마다 색상과 문양, 사모의 형태 등에서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에서의 대원군의 관복은 용문이 수놓아진 청색 사모에 용문과 거북문이 섞인 청단령을 착용하였으며 '찬란한 여명'에서의 대원군은 반짝거리는 금속 장식이 달린 용문의 연보라 빛 사모와 거북 문양이 금수 놓아진 연보라빛 단령을 착용하였다. '명성황후'에서의 대원군은 양각이 가늘게 절하된 흑색 사모에 거북 모양이 금수 놓아진 목이 바튼 검은 단령을 착용하고 있다. '찬란한 여명'과 '명성황후'에서 연출된 이러한 관복은 대원군이 청나라에서 돌아온 이후를 보여주는 듯 착수에 목 부분이 바튼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홍선대원군이 자신의 기린 흉배를 거북 흉배로 바꾸어 사용하였던 때였는데 각 드라마에서 연출한 의상은 정확한 문양 파악은 어려우나 대체로 관복에 거북 문양을 사용하고 있어 고증을 염두에 두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복식의 유형이나 형태, 색상 면에서 고증으로 본다면 복식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극의 화면상의 효과를 우선시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상 연출은 고증을 왜곡하였지만 사극 의상이 지닌 상징성이 강조되어 그 의상 자체에서만도 극의 감정과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연출로는 효과적이었다고 보여진다.

## V. 결론

본 연구는 TV 사극 의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하나로서 제작 시기를 달리하지만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TV 사극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표 7> 각 드라마에 연출된 대원군의 관복 분석

시기별 드라마	영상물에 나타난 대원군 관복 형태 분석							관련된 복식 이미지	촬영 시기
	사모			안경					
	관정	양과	색상	색상	장식	깃 모양	대		
MBC조선 왕조 500년 대원군	중간	중간폭	흑색	홍색	기린 흉배	아래로깊이 파임	홍색		드라마 전반부
	중간	앞으로 휩수 놓임	청색	청색	용 금수	깊이파임	홍색		대원군 청에서 돌아온 후
KBS1 찬란한 여명	중간	약간 휩 넓은 편	흑색	홍색	기린흉배	깊이파임	홍색		드라마 전반부
	중간	약간 휩/소폭/금수	연보라빛/금수	연보라	거북 금수	깊이파임	연보라색		대원군 청에서 돌아온 후
KBS2 명성황후	중간	넓은폭	흑색	홍색	기린 흉배	깊이파임	홍색		드라마 전반부
	흑색 의선관			청색	거북흉배/어깨보	목에 바름	청색		임오군란
	중간	얇고 긴편/금수	흑색	흑색/금수	거북 금수	목에 바름	흑색		대원군 청에서 돌아온 후

사극에 나타난 의상에 관한 연구 제1보(의폐 질차를 중심으로 한 의상표현 변화 양상)에 이은 후속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인물 의상의 고증과 극적 구성간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극의

상의 신분별 표현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의 신분별 복식 표현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복식 유형이 다양해져 양적으로 증가됨을 보여준다. 이는 전체적으로 연출된 복식 유형의 증가뿐만 아니라 특정 복식 유형도 최근으로 올수록 다양하게 연출됨을 볼 수 있다.

둘째, 최근작의 경우 신분별 의상은 완벽한 고층의 재현이 아닐지라도 인물의 신분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었다. 즉 형태 면에서 고층에 입각하되 색과 소재에 변화를 주는 의상 연출을 통해 인물과 화면의 영상미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인물의 신분 상징성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

셋째, 사극 의상은 후기작으로 올수록 극적 구성이나 캐릭터의 강조를 위해 고층과 달리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사실에서 최근 사극 의상은 사극의 직접적 시각 도구로서 그 가시적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와 함께 도출된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 의상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 사극 의상에 있어서 고층에 의한 의상의 재현보다는 의상을 통한 영상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 TV 사극 의상의 제작 여건의 향상은, 사극 의상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가져와 영상 속의 사극 의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었다. 이렇듯 제작 여건이 향상된 현시점에서 사극 의상은 시대적 고층으로서 중요성만을 담지 않는다. TV 사극 의상은 점차 우리나라 전통 의상에 대한 미의식을 담고 민족적 자긍심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시각적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아름다운 의상을 통한 영상미는 완벽한 고층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상미에 치중된 사극 의상의 변화 특성은, 형태 면에서는 우리의 전통 의상임을 보여주는 고층에 입각하는 대신 색상과 문양, 소재 등에서 고층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나타났다.

둘째, TV 사극 의상의 표현 양상은 점차 드라마의 감정상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극적인 구성과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 후기작으로 올수록 드라마의 극적 상황과 극적 전환 등을, 화면에 연출되어진 의

상의 조형적 특징과 유형 등에서 가장 먼저 짐작할 수 있다. 즉 최근작으로 올수록 고층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특정 의상의 등장시기를 조정하거나 의상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등 효과적인 의상 연출을 통해 극적 반전이나 권력의 중심 이동, 드라마의 감정상의 흐름과 사건 전개를 보여주려는 경향이 커졌다. 따라서 과거 사극 의상이 사건 전개와 고층에 입각한 연출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사극의상은 효과적인 시각 요소로서 드라마의 감정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중요시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제작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역사적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들에 나타난 의상의 표현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층과 극적 효과간의 시대에 따른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강조된 사극 의상에 있어 시대물로서 고층의 중요성, 시대적 유행성을 넘어서 현 시점에서 사극 의상의 효과적인 표현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갖도록 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반면 본 연구는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TV 사극에 표현된 의상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극 의상의 변화 특성을 모든 TV 사극 의상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각 TV 사극에 나타난 의상 표현은 영상물의 화면만으로 고찰하였으므로 색상과 문양 등의 복식 조형의 정확한 고찰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 의상과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TV 영상물에 표현된 사극 의상 뿐 아니라 무대 공연에 사용된 사극 의상에 대한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명성황후라는 인물의 당대 인식 변화에 따라 영상물 이외의 사극 의상에 나타난 변화 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명성황후가 등장하는 사극에 국한되지 않고 같은 역사적 배경이지만 제작 시기를 달리하는 여타 사극에 나타난 의상 표현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최근 사극 의상 표현에 나타난 변화 특성을 일반화하는 것도 의의가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1) 조선일보 (2003. 11. 6). 대장금 열풍, '퓨전사극' 들여다 보기. 자료검색일 2004. 2. 13, <http://kind.com>
- 2) 역사적 소재와 역사적 배경으로 극화(劇化)된 공연물이나 영상물을 사극이라 하고 그러한 사극을 위해 사용되어진 의상을 사극 의상이라 한다. 사극 의상은 무대 위의 공연을 위한 무대 의상, 영화와 TV 등의 영상에 사용되는 영상 의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
- 3) 이정자 (1985). 영화의상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연구: 장 꼭도의 미녀와 야수에 적용하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0.
- 4) 오명환 (1994). 텔레비전의 사회학; 현대 영상 언어와 해법을 위하여. 서울: 나남, pp. 169-173.
- 5) 한국일보 (1996. 8. 13). 찬란한 여명, 외세에 무력한 민족의 수모·분노 실감. 자료검색일 2004. 2. 13, <http://kind.com>
- 6) 한겨레 신문. (1996. 5. 8). '웬 왕권 강화 대하 사극?'. 자료검색일 2004. 2. 13, <http://kind.com>
- 7) 김은남 (2001). 역사는 여걸의 복권을 요구한다: 명성황후에 얽힌 진실 추적, 발군의 외교력 지닌 고종의 방패. 시사저널, 통권 626호. 2001. 10. 25, pp. 88-92.
- 8) 노영혜 (2000). 1990년대 후반의 한국의 대표적 국민 뮤지컬의 주제와 작품 경향 명성황후와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음악과 문화, 3, pp. 61-89.
- 9) 명성황후. 자료 검색일 2004. 9. 24, <http://kbs.co.kr>
- 10) 경향신문 (2001. 6. 29). 명성황후 이미연 VS 문정왕후 전인화. 자료검색일 2004. 2. 13, <http://kind.com>
- 11) 유송옥(1991).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 서울: 수확사.
- 12) 세종대학교 박물관 발행 달력.
- 13) 이명은 (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1.
- 14) 권혜진 (2001). 당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9.
- 15)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1989). 안동김씨분묘발굴 조사보고서: 김수근·병국 가계의 자료를 중심으로. 온양민속박물관.
- 16) 백숙자 (2002). 조선 시대 당의 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5.
- 17) 권혜진 앞의 글, pp. 56-57.
- 18) 정신문화연구원 (1994). 고문서집성, 12권.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33.
- 19) 권혜진. 앞의 글, pp. 48-53.  
백숙자. 앞의 글, pp. 46-50.
- 20) KBS2 '명성황후' 윤용훈 감독과의 인터뷰. 2004. 9. 16.
- 21) 박성실 (1995). 조선후기의 복식구조. 동양학, 25,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pp.365-382.
- 22) 高宗實錄 卷33 33年 4月條.